

전통문화상품전 대상 '옷칠색잔'

불교박람회 기간에 전시... "현대적 색감" 호평

우수상에는 '옷앤옷' 등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박람회)의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에 'RYU1987'의 '옷칠색잔'이 선정됐다. RYU1987의 '옷칠색잔'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전통공예인 옷칠에 현대적인 색감을 입힌 작품"이라며 "실용적이며 완성도가 높아 발우세트와 같은 다른 아이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우수상품전의 우수상인 운영위원장상에는 '옷앤옷'의 '천연옷칠 오방색 공기놀이'와 '계절사이로'의 '이불, 참선방석, 다포 외'가 뽑혔다.

우수상을 받은 '옷앤옷'은 "오방색이라는 전통의 색과 놀이를 현대적인 이미지와 잘 결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계절사이로'의 상품에 대해서

는 "힐링의 느낌이 이번 박람회의 주제와 잘 맞고 문양의 완성도가 높다"는 심사평이 나왔다.

이번 공모전의 입선작으로는 각각 갈통바이린(한복린)의 '갈통 등의 세트', 배진경의 오곡시대가 출품한 '삼죽오 곡옥 시리즈 세트', 붓다아티스트의 '불교캐릭터 상품'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문화우수상품전의 이번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기획전시 및 현장 판매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전시장 안내리플렛과 디렉토리 특별색션에 수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진행된다. 또한 박람회 참가 업체들은 상호 간판에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수상 업체'라는 표기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수상작들은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간 중 별도의 전시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작 'RYU1987'의 '옷칠색잔'

한국미술사학 '불화와 산수화' 강좌 개설

3월 21~6월 13일, 12회에 걸쳐 진행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이하 연구소) 박물관대학은 갤러리 한옥과 함께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연구소에서 '불화와 산수화'를 주제로 제 47회 미술사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총 12회(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3월 21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불화와 산수화(고려 태조 금강산 담무갈보살 예배도를 중심으로)' 강의로 시작된다. 이어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산수화의 성격과 안견의 몽유도원도'(3월 28일),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32관음응신도 등 조선전기 불화 속의 산수화'(4월 4일), 고연희 서울대 규장각 교수가 '절파의 산수화'(4월 11일)와 '무이구곡도의 세계'(4월 18일), 박은순 덕성여대

교수가 '겸재의 진경산수화와 금강산도'(4월 25일)와 '김홍도 일파의 화원산수화'(5월 2일)를 주제로 강의한다.

5월 9일에는 현장답사(불화 속 산수화 감상)를 실시한다. 이어 신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이 '조선후반기 나한도의 산수화'(5월 16일), 김현권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이 '추사 김정희 일파(허련까지)의 새로운 관념 산수화(이인문, 전기)의 이해'(5월 23일), 정병모 경주대 교수가 '민화와 산수화'(5월 30일), 유미나 원광대 교수가 '장승업과 근대의 산수화(안중식·조석진·변관식)'(6월 13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불화와 산수화의 의미'(6월 13일)를 강의한다. 개강식은 3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참가비는 17만원이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諸行無常'의 이치 이미지로 담아

(제행무상)

이지은 불자 조각가, 3월 21일까지 갤러리미 초대전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 변화가 없는 순간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변화가 있다. 이를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말한다. 만물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고 생멸하지만, 인간은 이를 불변의 존재라고 여긴다.

이지은 불자 조각가의 화두는 이 같은 변화의 경계를 이미지와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수 많은 입방체의 종이 도면을 잘라내고, 스펀지를 도려내 패턴을 만드는 지난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변화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변화의 경계를 표현하는 이지은 조각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3월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미에서 열린다. '경계에서 선 4인' 갤러리 초대전으로 열리는 전시회에 이지은 조각가는 '별일없지- 부재의 존재 기록하기'를 주제로 참여한다.

주제인 '부재의 존재 기록하기'는 이지은 조각가가 화두로 들고 있는 작품 철학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지은 조각가는 10여 점의 설치 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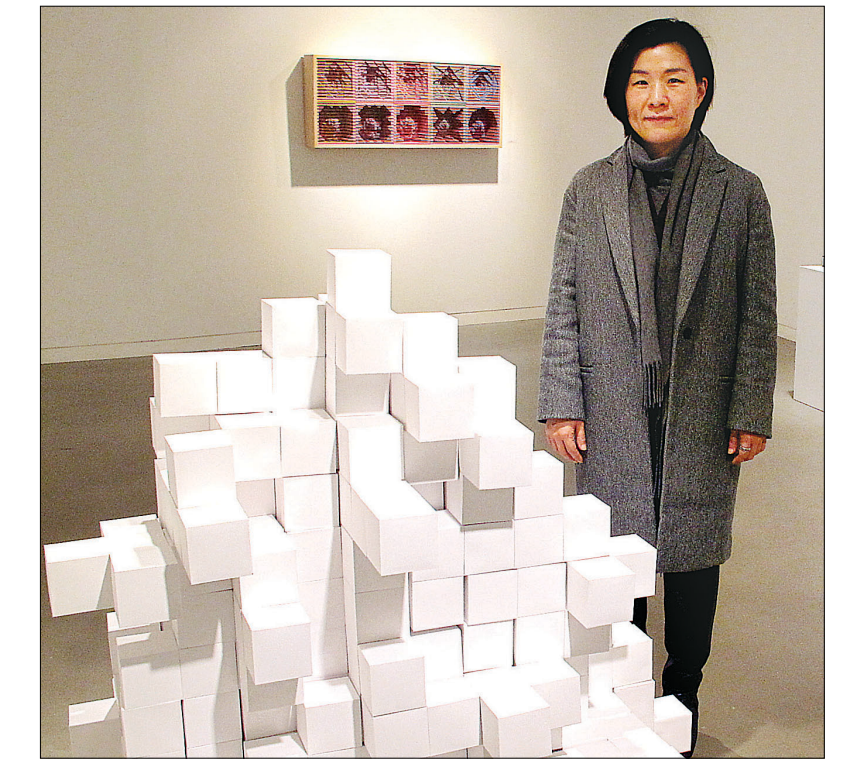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큐브' 연작이다. 딱딱한 종이에 그려진 같은 모양의 입방체 도면들을 칼로 자르고 책으로 묶어낸다. 잘라낸 도면은 접어 붙여서 입방체를 만들어 자유롭게 쌓아둔다. 입방

체 도면의 수는 1500여 개, 책으로는 250페이지 6권이 묶였다. 1500장을 일일이 손수 잘라내는 지난한 작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변화의 틈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1000장에 그려진 도면을 자릅니다. 같은 모양을 자르지만 앞서 자른 것과 지금 내가 자르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인가요. 자세히 보면 모양도 미세하게 다를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의식들도 다를 것입니다. 1500장의 변화가 모여 책과 입방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등 자르고 붙여내는 작업 그 속에서 변화의 경계를 만나 설치 작품 위주 10여 점 전배 오는 3월 21일까지 전시 열어

이지은 조각가의 작품은 고된 노동이다. 매일 적지 않은 시간을 잘라내고 붙이는 단순한 노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는 고도의 집중을 순간마다 확인한다. 이는 이지은 작가의 작품 노트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의 작업은 실체와 허상,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통해 존재의 생성을 성찰하고자 한다. 있음이 있음은 네거티브 방



작품 '큐브'와 함께 서 있는 이지은 조각가. 수많은 입방체들은 변화의 경계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들이다.

식으로 변화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없음이 곧 있음이 되고, 있음이 곧 없음이 되는 경계의 생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몸의 반응과 직관적인 얹어 소통할 때면 우연과 필연의 경계 없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지은 작가의 사유는 오롯이 불교 신앙에서 비롯된다. 수효사 신도인

어머니를 따라 접한 불교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조금 더 웅숭깊어졌다. 지난해에는 성균관대에서 동양철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고정된 인식은 사물을 고정화시키고 편견을 만듭니다. 이를 부수는 것이 제 작품의 화두입니다"는 작가의 말이 인상 깊다. (02)733-8877 신성민 기자

'나의 본질 찾기' 연극으로 만난다

창작극 '이뿏꼬' 제주 공연 3월 17~18일 아트센터서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누구이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지식인의 성공과 좌절, 깨달음으로 표현한 창작연극 '이뿏꼬'가 제주서 공연된다.

오는 3월 17~18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오후 3시, 7시 4차례 공연으로 제주 불자들을 찾은 이번 공연은 서울과 대구, 부산 공연에 이은 것이다.

연극 '이뿏꼬!'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는 바닷가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무명 스님(정선우)은 모비를 만지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보육원에서 자란 장선우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되는 임직적인 삶을 산다. 판사 임용 기념 가족여행을 떠난 날, 선우는 사고로 부인과 딸을 사



연극 '이뿏꼬'의 한 장면. 주인공 무명 스님의 삶을 통해 본질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고로 잃게 된다.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판사직을 던지고 목숨까지 버려 버린 선우는 출가를 감행하고 생사의 반뇌를 깨닫기 위한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줄거리에서 보듯 연극 '이뿏꼬'는 삶에 진정한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과 고통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아름답

다운 세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감독의 바람으로 제작됐다.

창작연극 '이뿏꼬'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총연출한 정광진(J&C 코리아 뮤지컬컴퍼니 대표) 감독은 "주인공의 불행한 운명에서 삶의 허무를 만난다. 비이성적인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작금의 우리들 삶을 반추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064)755-2203 신성민 기자

'MAHA KUMBH' 거룩한 인도의 신들

윤상섭 작가, 8일까지 사진전

신들의 나라, 인도의 수행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윤상섭 사진작가는 'MAHA KUMBH 천상재회'라는 주제로 3월 2~8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윤상섭 작가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나체수행자 '나가사두'들의 거룩한 고행 길을 따라 이들의 몸짓 하나 하나 고스란히 사진으로 담았다. 신에게 받은 원초적인 정신과 육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축제는 경이롭고 신비롭다. (02)733-4448 신성민 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염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뱀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